

2010. 11. 18.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11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현안분석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김영일 · 임경묵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금융위기 기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9년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
 -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대비 빠르다는 점을 들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와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크게 하락하여 위험도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의 가구별 소득 및 부채관련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가계 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시자료는 가계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분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부실 위험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동태적 분석도 가능

- 동태적 분석은 가계를 추적하여 부실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다만, 2008년 중반에 조사된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므로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2. 거시자료에 기초한 가계 부채의 위험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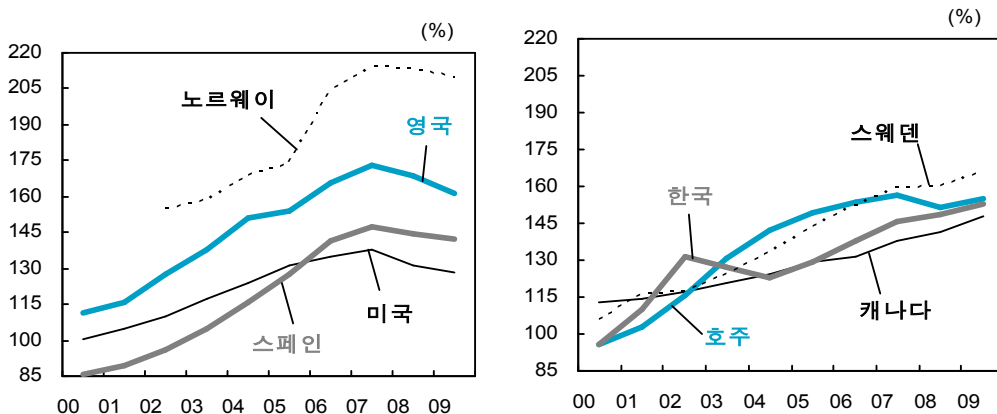
□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를 전후한 최근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소득대비로는 2009년 현재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

○ 가계부채는 카드채 사태(2002년) 이후 일시적인 조정기간을 거쳤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반전한 뒤 소득대비로도 증가세를 유지

- 2009년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86%를 기록하였으며,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로는 153%를 기록

○ 우리나라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2009년 현재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영국 등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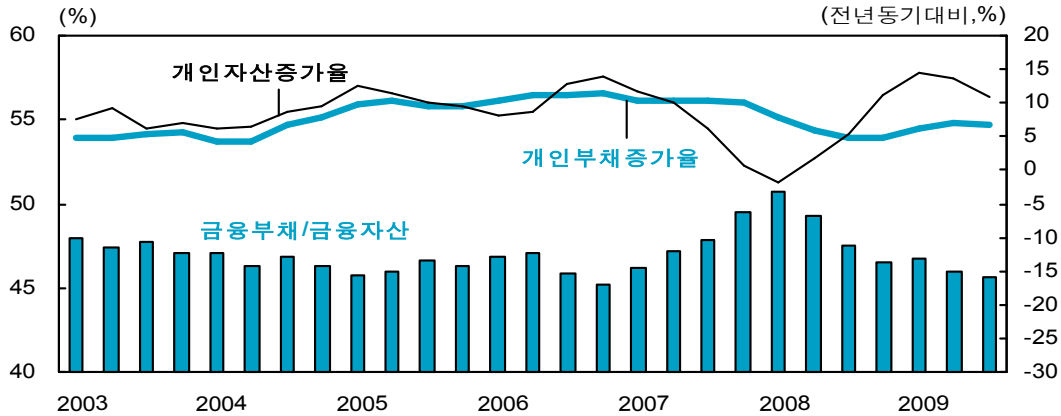


자료: 각국의 자금순환표상 개인 금융부채와 국민계정상 처분가능소득;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관련자료 참조

□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이후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이며 가계부채의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

- 최근의 경기회복국면에서 부채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된 반면 자산의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크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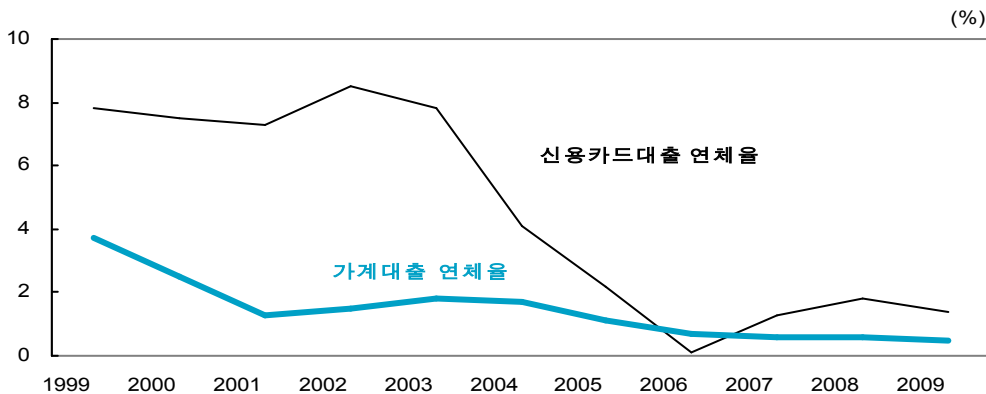
개인금융부채증가율, 개인자산증가율, 개인금융자산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 또한, 후행지표로 평가되는 가계신용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부문 신용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평가

가계부채의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프는 해당년도 12월의 연체율을 표시

- 따라서, 거시지표의 분석만으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가계부문 위험은 고위험군 부채가구를 중심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총량에 기초한 거시지표보다 부채의 분포와 동태적 분석이 가능한 미시자료가 부실 위험에 대한 판단에 있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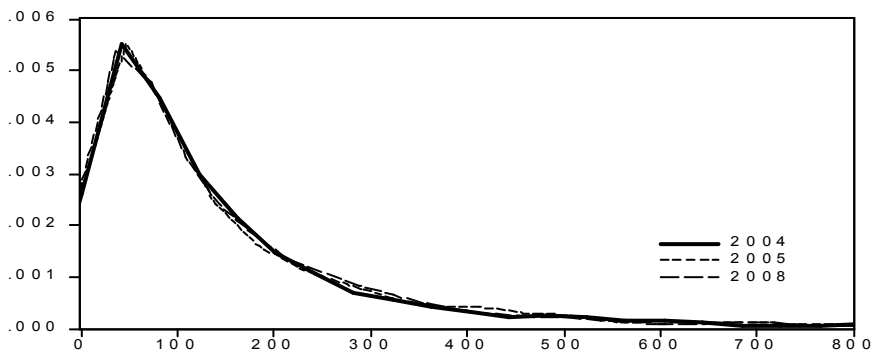
3.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 부채의 위험도 평가

- 본 절에서는 부채를 보유한 가구별 소득대비 부채비율, 부채상환비율, 부채상환여력 등을 기준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
 - 소득대비 부채비율(Debt Income Ratio; DIR)은 금융기관부채/소득,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금융기관부채상환액/소득, 부채상환여력은 소득-(생활비+부채상환액)으로 정의됨.
 -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이 높을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작을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
 - 개별가구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포의 연도별 변화 및 이동성에 대한 분석은 거시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

가. 연도별 횡단면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가계 부채의 위험도 분석

- 전체 부채가구중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가구별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분포는 250%를 상회하는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20% 이하이며, 400%를 상회하는 부채가구의 비중은 10% 이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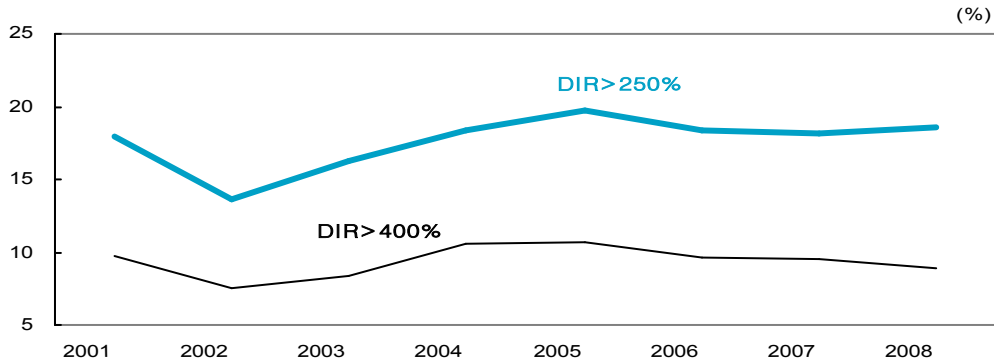
부채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분포



자료: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래프 아래 부분 면적은 해당 부채비율(%) 이하인 가구 비중을 의미

- 2005년 이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상회하는 고위험군 부채가구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 부채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시사

소득대비 부채비율(DIR)이 높은 부채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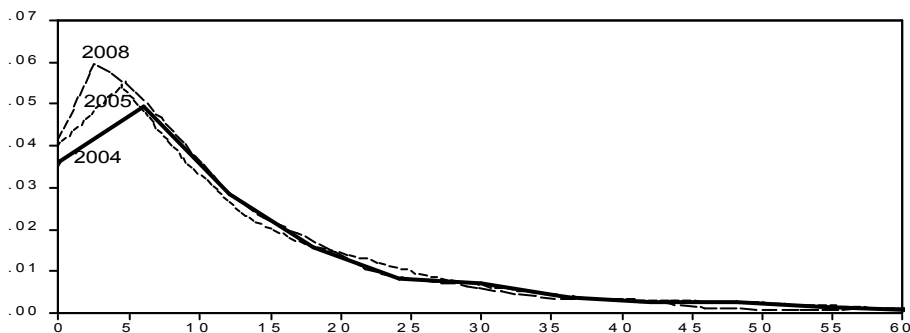


자료: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또한 부채보유가구중 부채상환비율 기준 고위험 가구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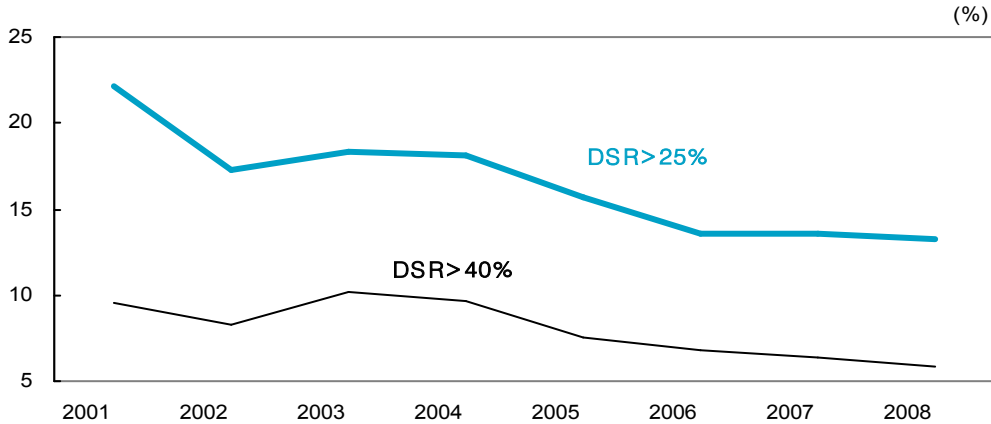
- 부채보유가구중 80% 이상이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이 25% 이하인 가구이며, 부채상환비율이 25% 또는 40%를 넘는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
- 다만, 대부분의 가계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을 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상환비율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

부채가구의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분포



자료: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래프 아래 부분 면적은 해당 부채상환비율(%) 이하인 가구 비중을 의미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SR)이 높은 부채가구 비중



자료: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한편,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을 기준으로 살펴본 가계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취약한 가구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보유가구중 부채상환여력(소득-생활비-부채상환액)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중이 30% 내외로 높은 편이기는 하나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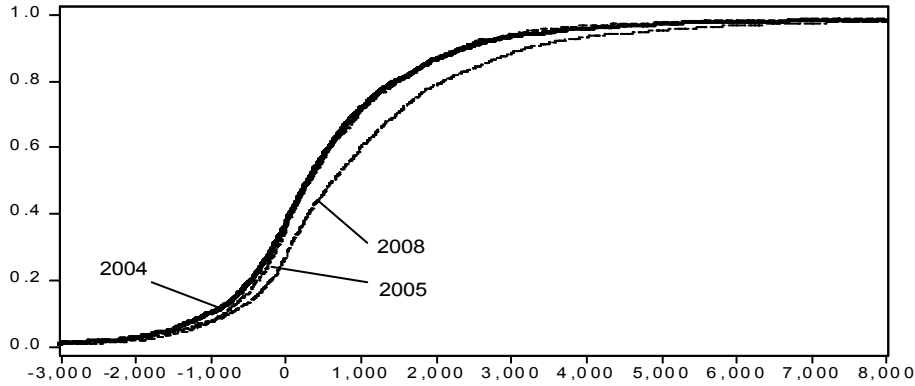
- 전체가구에서 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가구(취약부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

취약부채가구비율, 취약부채비율, 잠재손실비율

	전체가구대비 취약부채가구 비율	부채가구대비 취약부채가구비율	전체부채대비 취약부채비율	잠재손실비율
2004	15.06	37.26	41.57	11.67
2005	14.23	35.33	35.65	10.10
2006	12.51	29.69	33.38	8.87
2007	12.96	31.23	37.88	9.77
2008	10.70	27.30	32.54	5.96

주: 전체가구 대비 취약부채가구비율=(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부채가구수)/(전체 가구수)
 부채가구 대비 취약부채가구비율=(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부채가구수)/(전체 부채가구수)
 전체부채대비 취약부채비율=(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부채가구의 부채액)/(전체 부채액)
 잠재손실비율=(부채상환여력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부채가구의 순부채액)/(전체 부채액)
 취약부채비율과 잠재손실비율의 경우 극단값을 갖는 1~2개 가구를 제외할 경우 해당 비율이 다소 작아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감소추이는 위 테이블에서 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부채가구의 부채상환여력 누적분포(Cumulative distribution)



자료: 노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래프는 해당 부채상환여력(단위: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비율을 표시.

○ 또한, 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부채상환여력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의 순부채(총부채-총자산)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8년 기준으로 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부채가구의 60% 내외에 달하고 있어, 경기, 이자율 등 거시경제 변동에 취약한 모습이며 추가적인 소비여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이번 금융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가계는 부채 측면에서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임금 등 소득의 하락 등으로 가계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과 이자율의 하락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 회복으로 부채상환부담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

나. 이전 행렬(transition matrix)을 통해 살펴본 가계 부채의 위험도 평가

□ 아래에서는 노동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부채의 위험도 측면에서 가구의 이동성(mobility)을 살펴보았음.

- 앞서 살펴본 횡단면 분석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이를 나타내었으나, 이러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계를 부채 위험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전행렬을 작성하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이전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전행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던 시기인 2005~08년중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는 부채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위험군에 고착되는 가구 비중은 낮게 나타남.
- 소득대비 부채비율 250% 미만의 저위험군 부채가구 중 다수가 저위험군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방이동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소득대비 부채비율 250% 이상의 고위험군 부채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하방이동을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부채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05년에 400%를 상회하였던 가구 중 20% 정도만이 2008년에도 4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에서의 고착화 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이전행렬(2005~08)

		(%)				
2008 2005	0	0초과~100미만	100~250미만	250~400미만	400이상	
0	75.60	13.31	6.77	2.34	1.98	
0초과~100미만	41.21	39.48	14.53	3.04	1.74	
100~250미만	29.98	30.65	23.71	8.50	7.16	
250~400미만	20.25	16.46	36.08	16.46	10.76	
400이상	34.24	12.50	15.22	15.22	22.83	

주: 불변비율: 36, 상방이동비율: 14, 하방이동비율: 50

□ 부채상환비율 기준으로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고위험군 가구의 부채구조가 고착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부채상환비율이 2005년에 40%를 상회하였던 가구 중 13% 정도만이 2008년에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을 기준으로 한 이전행렬(2005~08)

		(%)				
2005 \ 2008	0	0초과~10미만	10~25미만	25~40미만	40이상	
0	77.20	13.19	6.25	1.94	1.42	
0초과~10미만	43.57	38.47	13.38	3.06	1.53	
10~25미만	35.29	29.19	24.89	6.79	3.85	
25~40미만	28.17	21.13	29.58	10.56	10.56	
40이상	40.00	15.38	23.85	7.69	13.08	

주: 불변비율: 33, 상방이동비율: 12, 하방이동비율: 55

□ 한편, 부채상환여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전행렬에 따르면 대다수 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5년에 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가구 중 1/3정도만이 2008년에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 가구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부채상환여력을 기준으로 한 이전행렬(2005~08)

		(만원)		
2005 \ 2008	0미만	0~1000미만	1000이상	
0미만	34.70	41.60	23.71	
0~1000미만	23.00	48.80	28.20	
1000이상	13.58	23.74	62.69	

주: 불변비율: 49, 상방이동비율: 31, 하방이동비율: 20

4. 요약 및 시사점

□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의 분석결과 2005~08년중 가계부채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었던 것으로 평가

○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의 분석 결과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부채상환여력이 열악한 취약부채가구의 부실가능 부채규모도 전체 부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부채상환능력(소득대비 부채비율, 부채상환비율, 부채상환여력 등)에 기초한 고위험군 부채가구 중 다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부채조정이 가구별 수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5~08년중 증가하였던 가계부문 부채가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

- 가계부문의 전반적인 부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비중과 취약부채비율이 축소될 수 있었던 것은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 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낮지 않은 수준이고 상당수 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 부채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가계부문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던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며 최근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부채가구의 비중이 낮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부채상환비율과 금리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금리 인상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김영일 연구위원 02-958-4084

임경묵 연구위원 02-958-4238